

4. 폐로 전이된 신우 이행상피암종의 세침흡인생검 1 예 Metastatic Transitional Cell Carcinoma of the Lung from the Renal Pelvis, Diagnosed by Fine Needle Aspiration -A Case Report-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성남, 김미경, 박용욱, 유재형, 송계용

신우의 이행상피암종은 드문 질환으로 신종양의 6%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종양의 조직학적 등급과 임상적 병기는 비교적 일치되며 예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종양은 후복막 림프절로의 전이가 흔하고 골, 간 및 폐로의 원격전이가 잘되는 질환이다.

환자는 58 세 남자로서 3개월전 부터 계속되는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X-선 및 전신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폐의 좌측하엽에 3 cm 크기의 비교적 경계가 잘 지워지는 단일성 공동병변이 관찰되어 항결핵제로 치료하였으나 증상 및 병변의 호전이 없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도말표본은 출혈 및 괴사성 배경에 공포 형성 및 각화 현상이 없는 비교적 균일한 모양의 종양 세포들이 판상 혹은 유두상으로 배열되어 있어 원발성 폐암의 어느 암종과도 일치되지 않는 소견을 보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10년전 신우의 이행상피암종으로 실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전이성 암종이란 진단하에 좌측 폐하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절단면에서 내면에 유두상 증식을 보이는 공동성 병변과 함께 주변으로의 침윤성 양상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기관지와의 연결도 있었다.

저자들은 폐로 전이된 신우의 유두상 이행상피암종 1 예를 경험하고 세침흡인생검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상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5. 거대세포 암종 -5 예 보고- Giant Cell Carcinoma of the Lung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윤철희, 조갑래, 박관규, 장은숙

폐장의 거대세포암종은 매우 희귀하며 전 폐암의 2% 미만이다. 이 종양은 미분화성 대세포암종의 한 형태로 보며 편평상피나 또는 선상상피로의 분화가 전혀 안보이거나 간혹 약간의 선상분화가 보이는 수도 있다.

기관지 술절 세포진과 세침흡인 생검세포진으로 진단되고 또 조직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진단된 거대세포 암종 5 예를 보고한다.

환자는 39 세, 52 세, 54 세, 59 세, 85 세, 그리고 남자 4 명, 여자 1 명으로서 그 간단한 병력은 다음과 같다.

나이/성별	39/남	52/남	54/남	59/남	85/여
주소	기 침	기 침 호흡곤란	흉 통	호흡곤란 흉통	기 침
흡연유무	무	무	1갑반×수십년	1갑×수십년	반갑×수십년
기간	4개월	5년	1개월	1년	1개월
병소	우측상엽	우측중엽 변연부	좌측상엽 변연부	우측상엽	우측상엽
방법	Bronchial brush	CT-guided aspiration	CT-guided aspiration	Bronchial brush	Bronchial brush

위 5예의 세포진 검사상 다양한 크기의 암세포 집단이 견고하게 도말되어 나타났으며 한개 또는 다수의 핵을 가진 거대한 암세포들이 관찰 되었다. 이들 거대세포의 핵들은 다양하고 뚜렷한 핵소체를 보여 주었고 핵막을 비교적 매끄러웠으나 부분적으로 함몰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암세포들의 세포질은 비교적 풍부하고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6. 한국성 악성 중피종 2예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Localized Malignant Mesothelioma of Pleura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금주섭, 홍은경, 박문향, 이중달

중피종은 체강의 표층에 위치하며 흉막이 가장 흔한 발생 장소이다. 흉막의 단발성 한국성 중피종은 매우 드물며 대개는 양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악성도 보고되고 있다.

중피종의 세포학적 진단은 객담이나 기관지 내시경 보다는 흉막이나 복막 삼출액의 세포학적 검사에 의존한다. 그러나 상피성 중피종과는 달리 섬유성 중피종은 흉막 삼출을 덜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삼출액 내로 탈락되는 경향이 훨씬 적기 때문에 종피의 세침 흡인 세포학적 검사가 그 일차적인 진단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 교실에서는 그동안 2예의 섬유성 한국성 악성 중피종을 경험하여 그 흡인 및 접착 도말 세포학적 소견을 조직학적 소견과 함께 검토하고 세포학적 특징을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각 35세 남자와 37세 여자로 폐장의 좌측 및 우측 상엽에 각각 경계가 분명하고 둥근 종피를 보였고, 경흉 세침 흡인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한 후 종피를 제거하였다.

세포학적 소견은 두 예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세포는 과밀하게 도말되었고 주로 개개의 세포들로 흩어져 있었다. 간혹 성글게 짜인 세포집락을 보이기도 하였다. 세포질은 일부에서만 유지되어 있었고 난원형 또는 방추상의 균일한 핵모양을 보였다. 염색질은 미세한 과립상으로 균질하였고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거나 대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포들 사이에 무구조한 호산성 간질이 도말되어 조직에서의 교원